

언론보도와 초상권 분쟁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 토론회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효숙 이대 로스쿨 원장



총평을 하고 있는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8일 오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효숙)과 공동으로 “초상권 동의의 범위 및 후속 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두고 로스쿨 학생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 입장이 되어 상호 토론하고, 위원회 조사관과 변호사들이 모의 중재부를 구성해 토론 내용을 정리한 후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토론 내용은 12면 참조)

경기·인천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위원회는 11월 13일 인천 송도 웨라톤호텔에서 경기·인천 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연금 수원지법 부장판사, 류석호, 박상배 위원 등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3명과 김은환 경인일보 대표이사, 임창열 경기일보 회장, 김정섭 인천일보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대표이사, 송기홍 경기방송 대표이사, 윤승진 OBS경인TV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권성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언론사 대표들과 경기·인천 지역 언론계와 지역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